

반값으로 강진 누빈다... '시즌 2' 시작부터 흥행 질주

첫날 868팀 신청...총 3만7065개팀 신청·강진 전역서 87억 소비 "관광객에 경험 선사·지역 소득 증대 등 강진 대표 브랜드 여행 입증"

강진군이 여름시즌을 맞아 다시 선보인 '강진 반값여행 시즌2'가 시작과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재개된 이번 시즌2 첫날에만 무려 868팀이 사전 신청을 완료하며, 강진 여행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입증했다.

여행 경비의 50%를 환급하는 '강진 반값여행'은, 개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 원까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전국 최초의 파격적인 관광정책이다.

강진군은 반값여행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다양한 관광지와 축제를 경험하는 물론, 지역 상권 전반에 소비가 고르게 확산되는 효과까지 함께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신청은 강진 반값여행 공식 홈페이지(gangjintour.com)를 통해 여행 당일까지 가능하며, 신분증 제출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여행 종료 후에는 7일 이내 정산 신청이 가능하며, 관광지 2곳 이상 방문 인증 사진과 강진 내 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반값여행'은 전년도보다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사전신청 승인된 팀 수는 총 3만 7065개팀, 정산신청 승인된 팀은 2만 6048개팀이다. 참여자들이 강진에서 총 69억 5000만원을 소비, 총 31억 8000만원을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

(정상급)으로 돌려받았다.

돌려받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정상급) 17억 4000만원이 강진 관내에서 소비돼 이날 현재까지 총 87억원에 이르는 지역 내 직접 소비를 유도, 어려운 경기 속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반값여행의 여파는 관광분야 카드매출과 지역상품권 사용액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지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2025년 1-5월 강진군 관광 분야 카드 매출은 전년 대비 4.2% 증가했으며, 강진사랑상품권 사용액도 2024년 상반기 73억원에서 2025년 상반기 152억원으로 약 79억원 증가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제 반값여행은 군민에게는 소득 증대라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고 관광객에게는 강진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하는 강진을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전국이 주목하는 대한민국 최고 관광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강진군이 여름시즌을 맞아 다시 선보인 '강진 반값여행 시즌2'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물놀이장 V랜드. <강진군 제공>

"한국춘란 재배로 신소득 창출"...화순 이양면 '도송 춘란 자치회' 출범

창립총회서 사업활성화 방안 논의

화순군 이양면 주민들이 '도송 춘란 자치회' 결성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고 춘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착수했다.

지난 9일 총회에서는 정관 제정, 임원 선출 등 자치회 운영과 도송 춘란 재배교육장 입주를 위한 주요 사항들을 논의했다.

춘란자치회 출범은 주민들이 한국춘란을 직접 재배해 신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의 주체로 부자농촌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앞서 화순군은 군비 1억 2000만 원을 들여 오류리 674-6에 연면적 656㎡ 규모의 춘란 재배교육장 1개 동을 지난 4월 준공했다.

송대성 도송춘란자치회 회장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소득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군은 2024년 추진한 한국 난 산업화단지 조성 사업이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



화순군 이양면 주민들이 9일 '도송 춘란 자치회' 결성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었다. <화순군 제공>

사업에 선정돼 3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송 춘란 자치회는 향후 오류리에 들어설 '한국 난 산업화단지'와 연계해 재배부터 판매·유통까지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즐거움이 팔팔팔!"...장흥 물축제 26일 개막

8월 3일까지 진행...어린이 전용 물놀이장 확대·프로그램 다양

장흥군은 대한민국 여름 대표축제 '장남진 장흥 물축제'가 26일부터 8월 3일까지 장흥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장흥은 지금 즐거움이 팔팔팔!'이란 슬로건 아래 펼쳐지는 올해 물축제는 세계로 도약하는 축제,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개편된다.

개막일인 26일 삼수대점 거리 퍼레이드가 축제를 알린다. 축제 기간 동안 지상 최대의 물싸움, 수중 줄다리기, 장흥 워터비트, 황금 물고리를 잡아라 등 제대로 된 물놀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장흥물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지상 최대의 물싸움은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즐길 수 있다.

올해는 어린이 관객을 위한 어린이 전용 물놀이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 기간 매일 오후

3시에는 황금물고기 잡기가 진행된다.

물축제는 밤이 더 뜨겁다. 31일 뜨거운 여름밤, 축제장을 더욱 뜨겁게 할 장흥락 페스티벌이 열린다. 윤도현 밴드, 육중안 밴드, 노브레인, 크랙샷 등 국내 정상급 락밴드의 신나는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축제장에서는 소고기, 키조개, 버섯 등 장흥의 특산물도 조합해 맛보는 장흥만의 삼합 페스타가 펼쳐진다.

김성 장흥군수는 "물축제가 특별한 이유는 관광객과 지역민 모두가 주인공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라며, "올해 물축제에서 가슴 뛰는 행복한 추억,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충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나주시, 축산 농가 사육값 절감·조사료 자급률 높인다

시, 종자 구입비 30% 보조...25일까지 신청 접수

나주시가 '파(가을 파종)용 사료작물 종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축산 농가의 사육값 절감과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되는 조사료 종자는 가을에 파종해 이듬해 봄 가축 사료로 수확하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 호밀 등이다.

이번 사업은 동계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종자 구입비의 30%를 보조해 준다.

신청 자격은 나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가능하다.

신청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를 직접 방문해 작성·제출하면 된다.

종자는 오는 9월 초부터 나주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사료 자급률 제고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종자 지원 사업이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조사료 재배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시=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박대운 치우치과 두암점 대표 담양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광주의 한 치과의사가 평소 담양 고객들이 치료를 자주 방문하는 것에 보답하며 고향사랑기부금을 실천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박대운(오른쪽) 치우치과 광주두암점 대표가 담양군에 100만 원을 기탁했다. 두암동은 담양으로 향하는 길목으로 광주와 담양 지역민들이 다수 오가는 곳이다.

박 대표는 담양군정을 직접 방문해 기부 의사를 전한 뒤 "평소 담양에서 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며 "이웃 지지체로서 담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에 조성된 고향사랑기부금은 ▲거동불편 어르신 병행 및 퇴원 환자 통합 돌봄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향촌공동육아센터 운영 등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